

“뜯기에 끈수까지 갖춰 애드리브 마구 샘솟죠”

장서희, SBS '언니는 살아있다'서 물오른 코믹연기

“애드리브가 정말 마구마구 샘솟아요. 어떻게 하면 더 웃길 수 있을까 생각해 되고 아이디어가 막 나와요.(웃음)”

연기 인생 36년 만에 새로운 캐릭터를 입은 장서희(여·45·사진)가 회를 거듭할수록 물오른 코믹 연기로 안방극장에 웃음을 선사하고 있다.

SBS TV 토요 드라마 '언니는 살아있다'에서 '뜯기'를 장착한 귀여운 끈수 '민들레'로 사랑받고 있는 그를 최근 압구정동에서 만났다. 그의 활약 덕에 '언니는 살아있다'는 시청률 20%를 목전에 두고 있다.

장서희는 “민들레는 뜯기가 다분해 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캐릭터”라며 “이런 캐릭터를 처음 맡는 나로서는 너무 신선하고 재미있다”며 웃었다.

예를 들어 지난 5일 방송에서 민들레가 클레오파트라 가발을 쓴 채 룬살롱 마담으로 변장해 추태수(박광현 분) 앞에 나타난 장면. 추태수가 “민들레랑 얼굴이 똑같은데?”라며 의심하자 민들레가 “어 똑같이 고쳤어”라고 천연덕스럽게 답했다.

클레오파트라 가발도, “똑같이 고쳤어”라는 대답 모두 장서희의 아이디어였다.

“김순옥 작가님 대본 자체에 웃음코드가 많은데, 그걸 읽다 보면 저도 아이디어가 막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촬영장 분위기가 받쳐주지 않으면 애드리브가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는 최영훈 PD님을 비롯해 스태프가 애드리브를 너무 유쾌하게 받아주니까 배우들이 연기할 맛이 나는 거예요. 코믹한 캐릭터는 현장 분위기가 안 좋으면 주눅이 들기 마련인데 저희는 스태프가 빵빵 터져줘요. 클레오파트라 가발 쓰고 나온 날도 촬영장에서 웃음이 막 터졌어요.”

민들레는 코믹할 뿐만 아니라 이 드라마의 강력한 '사이드'다. 악녀들이 설치하는 탓에 다른 인물들이 괴로움에 몸부림칠 때 민들레는 나홀로 악녀들을 제압하며 막힌 배수관을 뚫듯 시원하게 한방씩을 날린다.

“요즘 '사이드' 캐릭터를 좋아하시는데 민들레가 딱 그렇잖아요. 다른 인물들이 못하는 일들을 민들레가 시원하게 해내니까 시청자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민들레는 유난히 욱도 많이 해요.(웃음) 제가 원래 맛글을 안 봤는데 요즘엔 봐요. 민들레에 대해서는 칭찬하는 맛글만 있어서 그거 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그는 '언니는 살아있다'의 '막장' 요소에 대해 “어차피 허구 아니냐”면서 “내가 이 드라마에서 '발연가'를 한다면 부끄러울 텐데 시청자가 민들레를 보며 즐거워하고 재미있어하니 그걸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예전부터 말해왔는데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라는 새로운 장르가 이제 자리 잡은 것 같아요.(웃음) 우리 드라마가 극성이 세지만 시청자들을 TV 앞으로 불러 앉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니는 살아있다' 시놉시스에서 민들레는 서열상 4번째였다. 주인공이 아니었다. 연기대상을 두번 거머쥐고, 중국을 사로잡은 한류스타 장서희로서는 거절할 수도 있었다.

“처음에는 고민했죠. 무엇보다 끈수 캐릭터도 처음이었어요. '아내의 유혹'을 함께 한 김순옥 작가님, '산부인과'를 함께 한 최영훈 PD님을 믿고 했어요. 그 선택이 옳았죠. 이제는 역할의 비중이 아니라 캐릭터를 볼 때인 것 같아요. 캐릭터



만 좋다면 얼마든지 저를 보여줄 수 있었어요. 이번 민들레처럼.”

실제로 '언니는 살아있다'는 진행 과정에서 무척 중심이 민들레에게 자연스럽게 옮겨갔다. 배우 장서희가 역할을 빛낸 덕이다.

“순리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욕심부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주인공이냐, 첫번째 역할이냐 따지는 건 이제 무의미한 것 같아요. 캐릭터가 좋으면 해이죠. 민들레 역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너무 재미있고 다음에도 또 이런 역할 해보고 싶어요.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너무 감사해요.”

아역배우로 출발해 연예계 생활 36년. 조연에서 주연까지 올라온 역전의 주인공이자, 한류스타까지 된 장서희는 깔끔한 자기 관리로 유명하다.

“연기가 지겨웠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연기는 너무 재미있어요. 다만 사람 상대하는 게 힘들었어요. 또 내가 아무리 잘해도 오해받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만큼 혹독하게 자기 관리, 주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 망가지기 쉬운 곳이 연예계인 것 같아요. 출발할 때 저보다 잘난 배우들 수도 없이 많았죠. 그런데 지금까지 활동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걸 보면 연예계가 참 어려운 곳이에요.”

장서희는 아직 싱글이다. 스캔들 한 번 없었다.

“연애야 저도 많이 해봤죠.(웃음) 다만 상대가 연예인이 아니어서 공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혼자서 편해요. 연애도, 결혼도 순리대로 해야겠죠?(웃음)”

“지금은 제주도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허수경, MBC '휴먼다큐' 출연

방송인 허수경(50·사진)이 두 번의 결혼 실패로 공황장애까지 겪었지만 지금의 남편을 만나 행복하다고 밝혔다.

허수경은 13일 MBC TV '휴먼다큐-사랑이 좋다'에 출연, 12년째 제주도에 머물며 가족과 편안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1989년 MBC 1기 공채 MC로 데뷔한 허수경은 1990년 3살 연상의 배우 장재진과 첫 번째 결혼을 했으나 1997년 이혼했고, 2000년에는 프로듀서 백종학과 재혼했으나 2006년 다시 같은 아픔을 겪었다.

허수경은 마음의 병이 심해져 약을 먹고 있다면서 “공황장애와 사회부적응, 우울 장애를 극복해주는 약인데 아픈 건 내가 자초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항상 남들이 하지 않는 힘든 길을 선택했다. 선택했는데 가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포기해야 하는데 처음에 주장했던 걸 우기는라고 억지로 건너갔다”고 털어놨다.

힘든 시절을 건너온 그의 결혼은 지금 이해영 한신대 교수가 지키고 있다. 허수경의 세 번째 남편이 된 이해영 교수 역시 작가 공지



영과의 이혼 후 비슷한 상처를 지니고 살아왔다고 한다.

허수경은 남편에 대해 “나만의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날 무척 아끼고 좋아해 준다. 그것만으로도 고맙다. '너는 뭐가 어때, 뭐가 문제야'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좋아해 주고 사랑해주는 게 행복하다”고 말했다.

남편을 '큰 나무'라고 표현한 허수경은 그와 6년째 '주말 부부'로 지내며 생활한복 디자이너로 변신, 제2의 삶을 살고 있다고 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또 2번의 이혼 후 남편 없이 인공수정으로 낳은 딸 भी도 출연, 주말마다 뭉치는 세 식구가 각별하게 지내는 모습이 공개됐다. /연합뉴

민해경, 4년만에 컴백 ... 10월 새 앨범 발표

김범룡과 협업

1980~90년대 사랑받은 가수 민해경(본명 백미경·55)(사진)이 4년 만에 새 앨범으로 돌아온다.

12일 가요계에 따르면 민해경은 10월께 발표할 새 앨범을 작업 중이다. 1980년대 인기 가수 김범룡이 작곡한 타이틀곡 녹음을 최근 마쳤다. 신보는 2013년 정규 17집 '밸런스'(Balance) 이후 처음이다.

한 관계자는 “타이틀곡의 뒷부분에 '때창'이 들어가는데 김세환과 해은이, 남궁옥분 등의 선후배 가수들이 민해경과 김범룡 씨를 위해 기꺼이 참여해줬다”고 말했다.

1979년 말 '누구의 노래일까'로 데뷔한 민해경은 이듬해 이 곡으로 TBC 동양방송이 주최한 '서울국제가요제'에 나가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연합뉴



1981년 '어느 소녀의 사랑이야기'가 히트하면서 그해 MBC '10대 가수 가요제' 신인상을 받았으며 “그대는 인형처럼 웃고 있지만, '보고 싶은 얼굴', '그대 모습을 장미' 등 다수의 히트곡을 내며 히트스카한 음색과 시원스런 창법으로 사랑받았다. /연합뉴

TV 프로그램 1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뉴스투데이 50 윤창 오순남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KBS 뉴스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사람, 산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정도전 (재) 50 숨터 (재)	00 살릴하는남자들 (재)	50 빛날스페셜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학교 2017 (재)	00 MBC 정오 뉴스 20 문화사색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연중기획-빛고를 행복이카데미		10 헬로킴지 아하! 동물탐험대 2 55 드림 주니어 스페셜	55 닥터 365
2	50 콘서트 필	00 KBS 뉴스타임 10 영화가 좋다 (재)	25 지오메카 55 꾸러기 식사교실	00 뉴스브리핑
3	30 공감다큐, 사람 50 탈도림상 스페셜	00 2017 런던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하이라이트	25 별별버너리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00 MBC 뉴스M	00 토크콘서트 화통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VJ 특공대 (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 뉴스 5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10 조작 45 날씨와 생활 50 고경전문록 남도에 살아리란다
7	00 KBS 뉴스7 35 우리말 겨루기	50 이름 없는 여자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10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글로벌24 55 체보자들	55 별별버너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30 왕은 사랑한다	
10	00 가요무대	00 학교 2017	00 왕은 사랑한다	00 조작
11	00 KBS 뉴스라인 40 서거 100주년 기획 특집다큐 이상철의 길을 걷다	10 대한민국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테마기행길	10 동상이몽 2 너는 내운명 1~2부
12	35 이웃집 할스 (재)	35 비바 K리그	1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35 MBC 뉴스 24 55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양초보 영어	09: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4:30 정글에서 살아남기	19:30 EBS 뉴스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5:00 오솔 상사	19:55 다문화 고부 열전
<사이비별 어드벤처 - 풍을 일타이 산맥>	09:40 세상이 나쁜 게는 없다 스페셜	15:05 내 친구 아서	20:50 세계테마기행
06:00 한국기행	10:30 한국기행(재)	15:20 우주탐험가 잭	21:30 한국기행
06:20 세계테마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35 모피와 친구들	<명물찾아 섬관리 - 어화등등 내 사랑 비금도>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오이고추장찌개와 바삭 잔멸치볶음>	15:45 코코몽 3	21:50 광복특집
- 마루의 어드벤처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30 두다다콩(재)	<노래로 조국광복을 염원하다>
07:30 로보카 폴리	12:00 EBS 정오 뉴스	16:45 덩동덩 유치원 1~2(재)	22:45 엄마를 찾지마
07:45 출동! 슈퍼핑크	12:10 글로벌 가족정하기	17:15 엄마 까투리	23:35 까칠남녀
-한국에 산다	12:45 세상을 모든 법칙(재)	17:30 플라워링 하트(재)	<남자들이여, 일어나라>
08:30 꼬마버스 타요	12:45 과학 다크 비온드(재)	17:45 호기심나라 오키도	24:25 세상의 모든 법칙
08:45 부릉부릉! 브루미즈	13:40 엄마를 찾지마(재)	18:00 생방송 토크쇼! 보니하니 1~4	<연애에 밀당이 중요한 이유?>
09:00 방귀대장 뽕뽕이		19: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24:30 세계의 드라마 (폴다 6부)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14일 (음 6월 23일 癸酉)

<p>子</p> <p>48년생 상호간의 조화와 균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60년생 일일이 대응할 가치조차 없으니라. 72년생 별의별 방법을 다 써 봐도 헛수고일 뿐이다. 84년생 표출하지 말고 흡입해야 할 시기이니라. 행운의 숫자 : 70, 06</p>	<p>午</p> <p>42년생 고강도의 조치만이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다. 54년생 앞 전 결실을 입태하는 마당에 임하리라. 66년생 낙낙하게 마련해 두는 것이 알차다. 78년생 그림의 딱이다. 90년생 여러 가지 근 거들을 확보해 두라. 행운의 숫자 : 01, 30</p>
<p>丑</p> <p>49년생 가서 보면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니라. 61년생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급히 터지리라. 73년생 최고의 대안은 경험과 중론 속에 나오는 법이다. 85년생 정확하게 실행해야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48, 62</p>	<p>未</p> <p>43년생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다. 55년생 간절히 소망한다면 이루어질 수 있다. 67년생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제일 중요해야 하는 단계라. 79년생 계속되는 형세 하에서 진전을 보일 것이다. 91년생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9, 38</p>
<p>寅</p> <p>50년생 거의 모든 재앙은 무리함에서 비롯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인식하자. 62년생 기본적인 부분에 충실해야 할 때이다. 74년생 총체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때가 되었다. 86년생 거주 장소였다면 버려도 된다. 행운의 숫자 : 94, 09</p>	<p>申</p> <p>44년생 우직할 정도로 진득한 덕성이 필요하다. 56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는 판단을 그르칠 수밖에 없다. 68년생 근심 없이 편히 지내겠다. 80년생 체계에 따르는 것이야말로 성부의 관 건임을 알라. 행운의 숫자 : 66, 70</p>
<p>卯</p> <p>51년생 나타나는 징후를 무시한다면 반드시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63년생 순응함이 유익하다. 75년생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용시켜 보자. 87년생 정성을 들이면 얻는 바가 많은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6, 51</p>	<p>酉</p> <p>45년생 위험하게 공중에 매달려 있는 형상이다. 57년생 정곡을 찔러서 말해 주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 69년생 준비한다면 능히 위험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81년생 두각을 나타내면서 상당한 진전을 보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1, 62</p>
<p>辰</p> <p>52년생 지리멸렬했던 지난날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서 날아오른다. 64년생 부담 갖지 않아도 될 것이다. 76년생 가벼운 현상에 불과하니 그다지 의식할 필요는 없다. 88년생 집착을 떨쳐버려야 객관적 판단이 가능해진다. 행운의 숫자 : 33, 61</p>	<p>戌</p> <p>46년생 당연하다고 여겨 왔던 관행 속에 위험 인자가 숨어 있다. 58년생 기본 구조를 잘 이해한다면 차질이 없으리라. 70년생 중심을 벗어남엔 갈수록 수밖에 없다. 82년생 전혀 드러나지 않은 채 영향력이 행사되고 있도다. 행운의 숫자 : 36, 86</p>
<p>巳</p> <p>53년생 확실히 파악한다면 운운은 의외로 쉽다. 65년생 현재의 상태와 유사하게 지속 될 것이다. 77년생 절제할 줄 알아야 지속 가능할 것이니라. 89년생 구도를 좌우할 만한 변수가 작용하는 계제이니라. 행운의 숫자 : 99, 84</p>	<p>亥</p> <p>47년생 대상의 선별에 신경을 써라. 59년생 성사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될 것이니라. 71년생 답답하더라도 잠자코 지켜보고 있어야 할 판세이다. 83년생 속성을 제대로 이해한 후에 행동한다면 후회하지 않으리라. 행운의 숫자 : 15, 40</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